

광주시 “시민 곁으로 문화공연 찾아갑니다”

ACC상상마당·상무시민공원·쌍암공원 등 5곳서 매주 토요일 공연
대중교통·자전거·걸어서 공연장 찾아... ‘대·자·보 정책’ 일상 안착

광주시가 올해도 광주 곳곳을 찾아 문화공연을 펼치며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선물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느낄 수 있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5개 자치구 공연에서 공연을 펼쳐 광주시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정책을 시민 일상에 안착시킨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상마당, 서구 상무시민공원, 남구 푸른길공원, 북구 양산호수공원, 광산구 쌍암공원 등 5곳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연다.

올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는 광주예술의전당 시립예술단(20회)과 광주문화재단 공모로 선정된 민간단체(40회) 등이 총 60차례 공연을 펼친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광주의 특색있는 공연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체감형 문화정책’의 하나이다.

특히 광주시립예술단이 오페라, 발레, 클래식, 창작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첫 공연은 오는 5일 토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

당(ACC) 상상마당과 푸른길공원, 쌍암공원에서 각각 열린다.

남구 푸른길공원에서는 광주시립창극단이 ‘풍류 in 광주’를 주제로 교방무, 판소리, 아쟁산조, 남도민요, 사물놀이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동구 ACC 상상마당에서는 여성 팸밴드 ‘원보틀’이 ‘북마크 온 원보틀’을 주제로 자작곡과 김광석 노래 등 커버곡들을 들려준다. 광산구 쌍암공원에서는 ‘외씨 버선’이 대중음악과 흥겨운 국악이 융합한 공연 ‘이 순간(AT THE MOMENT)’을 선보인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문화예술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서구, 소상공인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새봄’ 개최

4월 5~6일, 동천동 유적근린공원 하부 광주천변에서 진행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오는 5일과 6일 벚꽃이 만개하는 광천동, 동천동, 유덕동을 잇는 광주천 일원에서 힐링음악회 ‘새봄’을 개최한다.

이번 힐링음악회는 ‘봄을 여는 소리, 희망의 울림으로’라는 주제로 광주의 대표 벚꽃 명소인 광주천변에서 시민들에게 음악과 봄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첫날인 5일에는 ▲JTBC 싱어게인2 우승자 ‘김기태’ ▲국내 유일의 전자 오케스트라 ‘블래트릭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오르고, 6일에는 ▲TV조선 대학가요제 출신 ‘유하은’ ▲지역 대표 트로트 디바 ‘진이랑’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이 밖에도 광천·유덕·동천동 등 3개 동별 무대에서는 버스킹과 마술공연, 난타와 통기타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전기 기차 여행, 스탬프 투어, 공유자전거 및 피크닉 돛자리 무료 대여 등도 진행된다. 특히 동천동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기념하는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또한 이번 힐링음악회에는 피크닉존과 배달존을 운영한다. 배달이 가능한 착한 가게와 골목맛집들이 참여하고 광주공공배달앱을 함께 운영해 시민들에게 힐링과 즐거움을,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의



효과를 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착한 걸음 걷기’로 나눔과 기부 활동도 펼친다. 서구는 6일 오후 광주천변 일원에서 걷기 참여자의 걸음수를 합해 총 100만보를 달성하면 100만원을 서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힘찬 응원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광주천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꿈꾸며 새봄의 기운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봄 나들이 떠나볼까” 제5회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4~6일 개최

나주읍성 시전거리 재현 등 볼거리·먹거리·체험거리 풍성

금성산에 등재하고 남쪽에 영산강이 맞닿은 지세가 한양과 닮아 작은 서울, 소경(小京)으로 불렸던 나주읍성에서 벚꽃이 흠날리는 봄맞이 축제가 열린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금성산, 서성문을 비롯한 나주읍성 문화재 일원에서 ‘제5회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축제는 ‘나주목 봄나들이, 상춘(賞春)’을 주제로 조선시대 호남의 행정, 국방, 지리적 핵심 역할을 했던 나주목과 나주읍성 시전 거리를 재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선 수문장 교대 의식과 삼색유산놀이, 한복패션쇼 등 전통문화 공연과 읍성동 시민노래자랑, 동·서부 줄다리기, 시민대동놀이 한마당 등 주민 참여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특히 축제장 일원에선 ‘조선시대 시전거리’를 재현한다. 시전(市廛)은 고을이나 도시에 있던 상점가를 뜻하는데 주로 오늘날 종로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조선시대 상설 시장을 가리켰다.

쌀·건어물·과일전, 읍성 주막 등 방문객의 허기를 달래줄 각종 먹거리와 더불어

어 조선 잡사 재담꾼, 보부상 등 저자거리 인물들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여기에 캘리그래피 아트, 도상 캠핑, 조선 게임 열전, 어린이 당근마켓 등 가족 단위 체험프로그램과 인근 한수제에선 벚꽃축제도 함께 열려 봄의 낭만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정 추진위원장은 “벚꽃이 가득한 봄날에 제5회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오직 나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천년역사도시 나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성공적인 축제로 발돋움해 나주영산강축제와 더불어 지역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



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강진군민 문화생활 활짝 ‘강진영화관’ 17일 개관

30년만에 돌아온 영화관, 17일~18일 2일간 군민 무료 시사회

“강진영화관”이 오는 17일 목요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1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강진읍 어울림센터 3층에 들어서는 강진영화관은 개관 당일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군민 대상 무료 시사회를 개최한다. 관람을 원하는 군민은 오후 1시부터 선착순 입장하고, 노쇼(NO SHOW) 방지를 위해 영화 상영 시작 1시간 전부터 1인 1매 무료 발권한다.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16개소 5~7세 아동 300여명을 초청해 애니메이션 ‘출동! 왕영당이 히어로’를 무료 상영한다.

개관일 상영작은 강진 출신 김의성, 하정우 주연의 ‘로비’, 조현현-이창호의 바둑이야기를 담은 이병헌 주연의 ‘승부’, 강하늘 주연의 ‘야랑’과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출동! 왕영당이 히어로’ 등 최신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4월 19일부터

상영하는 영화는 강진영화관 홈페이지와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다.

강진영화관은 2개관 44석 총 88석 규모의 상영관으로 일반(2D)뿐만 아니라 입체(3D)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첨단 시설과 함께 팝콘, 음료수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매점도 함께 운영한다. 영화관 운영은 연중 무휴로 1일 4회 상영하며, 요금은 일반 7천 원, 입체(3D) 9천 원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소년(만 18세 이하), 군인, 경로(만 65세 이상), 단체(10인 이상),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은 할인된 6천 원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강진원 군수는 “일상에 지친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문화 생활을 쉽게 누리길 희망할 수 있도록 작지만 큰 강진영화관이 되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철 기자

광주은행, 제8회 광주화루 10인의 작가展 개최

전국 최대 규모의 한국화 공모전... 10인의 작품 20점 선보여

전의 수상작가 10명의 작품 20점이 공개됐다.

광주화루 공모전은 지난 10월 접수를 시작해 150여 명의 지원자 중 포트폴리오 심사, 출품작품 심사, 심층 면접 3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0명

의 작가가 선발됐다. 대상 수상자는 김정옥 작가, 최우수상은 박세진 작가, 우수상은 김홍성, 박형진, 전지홍 작가가 수상했다. 또한 입상 수상자는 기민정, 오세경, 최혜연, 함수지, 허용성 작가가 차지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상금은 대상 3천만원(1명), 최우수상 2천만원(1명), 우수상 각 1천만원(3명), 입상 각 200만원(5명)이다.

“광주화루 공모전”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지역과 나이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 한국화 화단 등단을 위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부터, 입지를 다진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경쟁하고 있다. /전혜경 기자

보다나온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